

# 특수지상작전연구회, SNT모티브에 전투원 목소리 전달

창구개설 등 발전방안 등 조인 개발총기체험사격 후 토론 가져 SNT모티브측 “적극 수렴할 것”

전문가집단인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SOC-K)는 수년 간의 세미나를 통해 얻은 야전 사용자의 요구와 발전방안 등을 조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군 제식화기를 제작해온 ‘SNT모티브’의 초청으로 부산 본사에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언론에 아직 선보이지 않은 SNT모티브의 신형 개인화기들도 다수 공개됐다.

## ◆SNT 사용자 중심의 변화 조인 구해... 특수지상연 총기시장 변화 등 조인

28일 SNT모티브에 따르면 자사가 개발 중인 ▲K16보병용경기관총 경량화 ▲STSM21 9mm기관단총 ▲STSR23 7.62mm반자동저격소총 ▲12.7mm대물저격총 ▲세번째 개량형인 STC165.56mm 특수작전용기관단총 등의 소개와 함께 차후 한국군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화기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지난 26일 설명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 측에서는 전인범 고문·홍희범 연구원(월간 플래툰 편



26일 SNT모티브본사에서 공개된 12.7mm 대물저격총과 STSR 7.62mm반자동저격소총(위), 세번째 개량형인 STC16 5.56mm 특수작전용기관단총.

집장)·계동혁 연구원(군사칼럼리스트) 등이 참석했고, SNT모티브 측에서는 김형철 대표이사·박문선 상무·송병조 특수개발팀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SNT모티브는 특수지상작전연구회에 개인화기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집단의 조인을 요구했고, 연구회측은 일선 전투원들의 사용자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개설과 세계시장의 흐름에 맞는 변화방법 등을 조인했다.

국내 군용총기 제작산업은 선두주자인 SNT모티브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주목을 끈 다산기공이 주요기업이다. 두 기업은 자동차 부품 등 정밀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전투력 개선을 위해 힘쓰는 기업이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격 등으로 성장 동력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SNT모티브는 특수지상작전연구회에 ‘새로운 변화에 대해 인식하다’고 정관념과 선입견을 벗어내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특수지상작전연구회는 ‘광학장비와 전술사격의 발전’, ‘소요군의 잘못된 요구’가 제작사의 잘



특수지상작전연구회 전인범 고문이 26일 부산 SNT모티브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인화기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형철 기자

못으로 비춰지는 관행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 연구 내용을 전달했다.

## ◆개발총기 체험사격, 사용자 요구 반영 보여

특수지상작전연구회는 SNT모티브 본사 사격장에서 STSR23 7.62mm반자동저격소총, STC16 5.56mm 특수작전용기관단총, STSM21 9mm기관단총, K5 9mm 권총을 체험사격하는 기회를 가졌다.

본지 기자도 7.62mm 실탄 3발을 받아 앞드려 쏘 자세로 25m 영점표적대 위

에 올려진 500ml 생수통 3개를 명중시켰다. 7.62mm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반동제어는 양호한 편이었고 방아쇠 압력도 부드러운 편이었다.

뜨거운 경쟁으로 관심을 받았던 STC165.56mm 특수작전용기관단총의 경우 조정간 및 노리쇠 만치 등의 형상을 수정했고 최신 경향인 ‘M-LOCK’ 방식의 총기레일을 채택해, 다양한 총기 액세서리와 호환이 훨씬 쉬워졌다.

STSM21 9mm기관단총은 SNT모티브 독자형식의 지연블로우방식이 적용됐다. 9mm권총탄의 특징상 낮은 반동과 쉬운조작성에 비해 총기의 무게감은 다소 느껴지는 편이었다. 체험사격이 이뤄진 총기 중 STSR23 7.62mm반자동저격소총과 STSM21 9mm기관단총은 처음으로 언론에 사격기회가 제공된 총기다. 양측은 체험사격을 마친 뒤 또 한번의 토론을 가졌다.

전인범 고문은 이날 “국산 군용총기와 해외수출 증대를 위해 더 많은 조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철 대표는 “향후에도 사용자 의견과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 리셀 플랫폼, 분쟁시 회원에 책임전가 못한다

공정위, 관련 불공정 약관 손질 크림·솔드아웃 등 국내 5개사 회원간 되팔기 분쟁시 ‘나몰라라’ 검수 미흡 등 귀책시 책임 부담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리셀(Resell) 온라인 플랫폼들이 정품 여부나 하자 확인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용자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크림(KREAM) 등 4개 플랫폼이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 사업자들이 스스로 이를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용약관을 심사한 리셀 플랫폼은 크림과 솔드아웃을 비롯해 ‘리플’(주식회사KT알파), ‘아웃오브스타’(주식회사아아웃오브스타), ‘프로그’(주식회사한티) 등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정식 운영 중인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5곳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리셀은 국내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과 재판매가 취미나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스니커즈 운동화의 경우 구매 진입장벽이 낮고 가격대비 활용성이 높다는 특성에 따라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와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는다.

과거엔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은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주)크림주식회사의 ‘크림’,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주)에스엘티디의 ‘솔드아웃’ 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며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 아니라, 정품 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리셀 플랫폼들은 그러나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면책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들이 경쟁적으로 검수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지만, 사업자 과실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셈이다. 앞으로는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셀 플랫폼에서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에 관한 정보의 진위여부나 하자·가품 여부와 같은 주요 분쟁 발생 요소는 사업자가 검수절차에서 점검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며 “회원 간 분쟁 또는 손해 발생 원인이 사업자가 플랫폼의 관리 또는 상품 검수과정 등에서 예방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고객의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서비스가 무료라는 이유로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회원 피해를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무료 수수료, 배송비 면제, 추가 정산 등 각

종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해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무료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품별 시세·거래현황 등 서비스 이용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바뀐다.

또, 기존에는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아 불명확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서비스 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고, 서비스 장애 등의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존 플랫폼들과 다른 리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리셀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2주 연속 하락세 보이는 휘발유

전국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4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87.46원,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11.90원을 나타냈다. /뉴시스

# 반도체·車 등 유망 일자리 매칭 장 열린다

고용부 내달 6일 ‘워크넷’ 개최 온라인 진행... 100여개사 참여

다음 달 6일부터 반도체·자동차 등 취업 유망 직종과 구직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일자리 행사가 열린다. 정부 고용 포털 ‘워크넷’을 통해 진행되는 첫 번째 행사다.

고용노동부는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워크넷에서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구인 수요가 많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 100여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기업과 구직자들이 더 쉽게, 더 많은 채용 또는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29일 워크넷에 ‘온라인 채용행사 누리집’을 개설하면,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과 연계해 구인·구직 과정이 진행된다. 고용센터가 참여 기업의 구인 정보를 워크넷 누리집에 올리면, 구직자가 희망 기업에 입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비대면 상설 면접장 등을 활용해 면접을 지원하는 채용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8월부터 지역과 현장 특성을 반영,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 업종 등을 대상으로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센터 내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3479명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